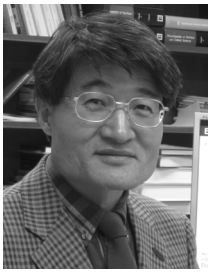
2009년 한해를 보내며...



학회의 전무이사로서 일을 시작한 것이 바로 얼마 전인데 어느새 한해가 모두 지나 마무리하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을 잘 보필하여 학회 운영과 행사에 미비함과 소홀함이 없었는지, 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였는지 등 모든 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동안 국문학술지, 영문학술지 및 기술지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편집위원님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해였지만 학회의 각종 행사를 잘 준비하고 진행해 주신 운영이사님들과 학회 실무에 헌신적인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의 학회 업무를 돌아보면 학술지발간의 경우 국문학술지는 꾸준하게 투고가 되고 있고 영문학술지는 날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고분자과학과기술지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참고하고 싶은 학술지로서의 가치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올해 학회의 행사는 예년과 비슷하게 고분자아카데미, 고분자신기술강좌, 춘·추계 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고분자포럼, 산학심포지움, 고분자기기분석이 이루어 졌습니다. 고분자아카데미는 초창기의 모델인 고분자 기초과목 위주로 하고 최근 이슈가 되는 몇 분야에 대한 강의를 합하여 기초와 응용이 조화된 형태로 행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학회 행사 중 가장 중요한 행사인 연구논문발표회의 경우, 추계학회에서 올 해 처음으로 하나의 세션을 국제학술발표로 구성하여 발표장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준비에 수고해 주신 이재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학회의 국제화를 위해서 국제발표 세션 운영은 앞으로도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영문학술지 발간의 경우 Macromolecular Research가 올해에 계약이 이루어져 내년부터 Springer사의 보급망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보급되게 되어 우리 학회 영문학술지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지리라 기대됩니다.

학회행사를 돌아보면, 연구논문발표회의 경우 발표가 심포지움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발표기회가 줄어드는 것, 1,100편이 넘는 포스터 발표가 아주 짧은 시간에 발표되어 논의의 시간이 부족한 것 등 발전적 방안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학회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에 대해 학회발전위원회에서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학회의 가장 주된 임무인 학술논의의 활성화와 심화를 위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고분자심층토론회도 한 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회는 봄, 가을의 학술발표회 때 매번 2,000여명이 넘는 참석인원과 1,200편이 넘는 발표가 이루어지는 아주 큰 학회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학회의 발전은 학회 창설 이래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대 임원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학회가 오늘 날과 같이 큰 규모로 발전한 가장 큰 원인은 우리 학회가 수용하는 학문의 범위가 전형적인 고분자를 뛰어 넘어 고분자와 융합된 유기 및 무기재료를 아우르고 응용 면에서도 정보, 전자, 의료부분 등 고분자 융합과학과 기술분야를 다루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고분자 소재의 너른 유용성과 soft matter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학문의 추세가 융합과학과 기술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 학회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크리라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 학회의 양적인 발전과 아울러 학회행사에 학계, 산업계 모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학회가 되도록 학회의 내실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 한해 동안 우리 고분자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회원여러분과 학회지 발간 및 학회 행사가 잘 진행되게 헌신적으로 수고하신 편집위원, 운영이사 및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는 우리 고분자학회가 더욱 융성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도 고분자학회 전무이사, 조길원>